

Andersen모형을 적용한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진미¹, 이윤주^{2*}

¹인하대학교 통계학과, ²인천재능대학교 간호과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r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Jin-Mi Kim¹, Youn-Ju Lee^{2*}

¹Statistics, Inha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을 적용하였다. 2012년 5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 5차년도 자료 중 30세 이상 60세 이하 2869명을 대상으로 SPSS 20 program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인요인으로는 학력, 결혼 상태이고, 기능요인에서는 취업여부, 비수급여부 및 자가주택 여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준비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노후준비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에서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능성은 증가하였다. 이에 장애인의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다각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마련 및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of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r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using the Andersen's behavioral model. The 2012 Disabled Employment Panel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1, 2012 to July 31, 2012 and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SPSS 20 progra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on a sample of 2,869 people aged 30 to 60 years. The predisposing factors (education, marital status), possibility factors (employment, non-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status, homeowner status, income), and desire factor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ffected the retirement preparation. To help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policies and programs based on the factors that reflect the individual needs must be established.

Key Words : Andersen's behavioral model, Disabled Person,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actors,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의 발달로 인한 노령화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중에서도 국내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에 노인들이 남은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삶의 만족은 중요한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1]. 이에 비해 60대 이하 경제활동 인구는 상대적으로 낮아 노인기의 가족을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부양을 하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 아닌 각 개인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2].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령이 되기 전부터 성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신체적 또는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Corresponding Author : Youn-Ju, Lee(JEI Univ.)

Tel: +82-32-890-7326 email: daminzimin@naver.com

Received June 24, 2014

Revised (1st July 28, 2014, 2nd August 4, 2014)

Accepted October 10, 2014

자세가 필요하고[3], 노후를 위한 삶을 준비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사회적인 제도의 마련 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4]. 노후준비는 고령이 되는 시점의 개인 및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및 여가 부분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5]. 이 중 경제적인 노후준비는 노령기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6] 본 연구에서 이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별이나 연령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성인인구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정도를 파악한 결과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20%-30%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노후준비정도는 23.8%이었고[9], 단일지역에서는 53.6%로 높아[6] 나이 또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최근 장애인들이 의술의 발전과 복지체계의 도움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증가되어 이들의 삶의 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0].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인 상태는 최저생계만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고 과거에 비해 더 힘들어지고 있다[11]. 또한 노인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구직에 대한 욕구에 비해 실질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11,12].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법안들이 논의되고 제정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노인복지나 장애복지 관련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되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13]. 이런 이유로 장애인들이 노년을 위해 준비하는 노후준비는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사안이 됨에도 이들의 경제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높은 저축수준이 사회참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3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준비는 1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14]. 이런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인 요인과 장애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한 결과 학력, 장애종류, 의료비수준, 수입만족도, 주관적 건강수준으로 나타났다[14].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주관적 경제수준, 장애수용 정도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며[15]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 수준이 낮아 경

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다[16]. 이외 만성질환여부, 주택 소유, 취업활동, 기초생활보장 여부나 도움 제공자 여부와 필요정도[17]에 따라서도 경제적인 노후준비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애특성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자아존중감은 대표적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높은 자아존중감은 일에 대한 동기유발과 독립성의 증진 및 능동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에[18]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은퇴를 수용하는 정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인데[19],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장애를 받아들이는 수용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20] 자아존중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 요인들과 추가적으로 확인이 요구되는 요인들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에 대한 예측을 위한 틀로 Andersen의 행동모형이 적절하다[7].

Andersen의 행동모형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 초기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보건행동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모형이다[7,21]. 이에 따르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개인적 특성을 소인요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가능요인으로, 서비스 이용을 필요하게 만드는 요인 등을 욕구요인으로 구분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소인요인으로, 가능성 요인에는 장애관련 요인 및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고,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요인을 욕구요인으로 포함하였다[Table 1]. 이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며 정책 및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Table 1] Research model using Andersen' behavioral model

Response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Retirement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der • Age • Education • Marital status • Reli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ability type • Chronic disease • Class of disability • Need the help of others • Employment status • Receiving of basic living assurance benefits • Self homeownership • Total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health • Average exercise time per day •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 Life satisfaction • Self-esteem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Andersen 모형에 의거하여 장애인들의 노후준비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 5차 자료에서 노후 준비와 관련된 문항인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장애인 28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조사방법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약5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 면접법)를 활용한 대인면접법으로 2012년 5월 2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Andersen의 행동모형에 의거하여 크게 소인요인, 가능요인 및 욕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소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종교유무 변수가 포함된다. 가능요인은 장애관련 변수들인 장애유형, 만성질환보유여부, 장애등급,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필요여부와 경제관련 변수들인 취업여부, 개인의 근로소득 및 근로 외 소득의 총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여부, 집 소유 여부 변수들로 구

성되어 있다. 욕구요인은 현재의 건강상태, 하루 평균 운동 시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욕구요인 변수 중에서 일상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은 각각 관련된 9개, 10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생성하였다. 이때,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각각 0.860, 0.867이다. 경제 부분에서 지난해 근로 소득과 근로 외 소득의 총합계는 가구가 아닌 개인의 소득을 의미하며,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는 근로 소득과 근로 외 소득의 합인 전체 소득에 1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노후준비

Table 2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64.1%로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평균연령은 50세이다.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졸이상이 9.7%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4가지 장애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신체외부장애가 6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 장애가 각각 22.9%, 8.5%, 6.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또는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9.1%와 4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1.1%와 33.5%인 반면 중상층 또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2%와 0.2%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는 응답자는 전체 대상자의 17.5%를 차지하였다. 노후 준비방법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가입이 5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저

축 및 적금 22.1%, 민간 금융 개인연금 7.6%, 저축성 보험 등 민간보험 7.4%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02명 중 77명인 15.3%로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Table 3].

[Table 2]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actors	Variables and categories	N	%	Mean	SD			
Predisposing factors	Gender	Female	1030	35.9	50.30	7.53		
		Male	1839	64.1				
	Age							
	Education	Ineducation	330	11.5				
		Elementary school	691	24.1				
		Middle school	580	20.2				
		High school	990	34.5				
	Marital status	College and over	278	9.7				
		Single	565	19.7				
		Married or cohabit	1623	56.6				
Religion	Separation or divorce or bereavement	681	23.7					
	No	1670	58.2					
Enabling factors	Types of disability	Yes	1199	41.8				
		physical disability	1782	62.1				
		Sensory disability	658	22.9				
		Mental disorder	243	8.5				
	Chronic disease	Internal impairments	186	6.5				
		No	1339	46.7				
	Disability rating	Yes	1530	53.3				
		1	352	12.3				
		2	587	20.5				
		3	656	22.9				
4		402	14.0					
5		399	13.9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6	473	16.5					
	Never	678	23.6					
	Not	1098	38.3					
Employment	Little	680	23.7					
	Much	413	14.4					
Receiving of basic living assurance benefits	No	1567	54.6					
	Yes	1302	45.4					
Self homeownership	No	1836	64.0					
	Yes	1033	36.0					
Need factors	Total income (ten thousand)	No	1612	56.2	928.51	1316.96		
		Yes	1257	43.8				
	Current health	Very bad	260	9.1%				
		Bad	1424	49.6%				
		Good	1135	39.6%				
		Very good	50	1.7%				
	Average exercise time per day (minutes)						36.22	49.39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Lower	1752	61.1%				
		Lower - middle	962	33.5%				
		Middle-high	149	5.2%				
Life satisfaction	High	5	0.2%					
				3.01	0.55			
Self-esteem				2.74	0.54			

[Table 3] Description of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Variables and categories		N	%
Retirement preparation	No	2367	82.5
	Yes	502	17.5
Main method for preparation*	Public pension	291	58.0
	Savings	111	22.1
	Private pension	38	7.6
	Savings insurance	37	7.4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insurance	15	3.0
	Real estate(monthly rent, rent deposit)	9	1.8
	Stock, fund, bond	1	0.2
Sufficient preparation*	Very insufficient	91	18.1
	Insufficient	334	66.5
	Sufficient	73	14.5
	Very sufficient	4	0.8

* Only ' Retirement preparation'=yes

3.2 소인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에 따른 경제적 노후 준비 차이

연구대상자의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에 교차분석 및 차이검정 결과는 각각 Table 4, Table 5와 같다. 우선 소인요인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남성의 노후 준비가 19.1%로 여성의 노후 준비 14.7%보다 높았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노후 준비가 4.8%, 11.9%, 15.2%, 20.2%, 42.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후 준비가 24.4%로 가장 높고 미혼인 경우가 7.3%로 가장 낮았다. 가능요인에서는 장애 유형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노후 준비가 4.9%로 다른 유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만성 질환이 없는 경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가 적을수록 노후 준비가 높았다.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가 노후준비가 높았으며, 주택 소유형태의 경우에는 자가 주택일 때 28.5%로 그 외 경우일 때 8.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의 경우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에 따른 연속성 변수들의 t-test검정 결과는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의 평균연령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연령보다 낮았다. 총소득에서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 집단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42.62분으로 준비하지 않는 그룹의 운동

시간인 34.86분보다 길었다. 또한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에서 일상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각각 3.38점, 3.11점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그룹의 평균점수 2.93점과 2.6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5].

3.3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

경제적 노후 준비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든 요인을 포함시킨 회귀모형의 결과를 살펴볼 때 첫째, 소인요인에서는 학력 및 결혼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 준비정도가 높고 미혼이 기타(사별, 이혼, 별거)에 비해 경제적 노후 준비가 0.444배이다. 둘째, 기능요인으로는 취업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주택소유 형태, 총소득 등이 영향요인이었다. 취업을 한 경우 미취업의 경우보다 노후준비가 2.467배 높고, 자가 주택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653배 높았다. 총소득이 증가 할수록 노후준비는 1.145배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노후준비정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에서는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1단계 높아질수록 노후준비가 2.161배 증가하며, 일상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1점 높아질수록 노후준비가능성은 각각 1.626배, 1.542배 증가하고 있다.

[Table 4] Chi-square test of retirement preparation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Retirement preparation				X ²
			No		Yes		
			N	%	N	%	
Predisposing factors	Gender	Female	879	85.3	151	14.7	8.960
		Male	1488	80.9	351	19.1	**
	Education	Ineducation	314	95.2	16	4.8	175.707 ***
		Elementary school	609	88.1	82	11.9	
		Middle school	493	85.0	87	15.0	
		High school	790	79.8	200	20.2	
	Marital status	College and over	161	57.9	117	42.1	124.437 ***
		Single	524	92.7	41	7.3	
		Married or cohabit Separation or divorce or bereavement	1227	75.6	396	24.4	
	Religion	No	1393	83.4	277	16.6	2.295
Yes		974	81.2	225	18.8		
Enabling factors	Types of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1452	81.5	330	18.5	30.957 ***
		Sensory disability	527	80.1	131	19.9	
		Mental disorder	231	95.1	12	4.9	
		Internal impairments	157	84.4	29	15.6	
Chronic disease	No	1051	78.5	288	21.5	27.985 ***	
	Yes	1316	86.0	214	14.0		
Disability rating	1	329	93.5	23	6.5	92.322 ***	
	2	524	89.3	63	10.7		
	3	549	83.7	107	16.3		
	4	314	78.1	88	21.9		
	5	304	76.2	95	23.8		
	6	347	73.4	126	26.6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Never	474	69.9	204	30.1	137.856 ***	
	Not	897	81.7	201	18.3		
	Little	604	88.8	76	11.2		
	Much	392	94.9	21	5.1		
Employment	No	1477	94.3	90	5.7	330.456 ***	
	Yes	890	68.4	412	31.6		
Receiving of basic living assurance benefits	No	1354	73.7	482	26.3	270.775 ***	
	Yes	1013	98.1	20	1.9		
Self homeownership	No	1468	91.1	144	8.9	186.944 ***	
	Yes	899	71.5	358	28.5		
Need factors	Current health	Very bad	246	94.6	14	5.4	103.310 ***
		Bad	1235	86.7	189	13.3	
		Good	857	75.5	278	24.5	
		Very good	29	58.0	21	42.0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Lower	1648	94.1	104	5.9	466.337 ***
		Lower - middle	651	67.7	311	32.3	
		Middle-high	66	44.3	83	55.7	
		High	2	40.0	3	60.0	

* : p<.05, ** : p<.01, *** : p<.001

[Table 5] T-test of retirement preparation related to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s	Retirement preparation				t
	No		Yes		
	Mean	SD	Mean	SD	
Age	50.46	7.52	49.56	7.51	2.416*
Total income(ten thousand)	672.44	933.97	2135.91	2009.60	-15.955**
Average exercise time per day (minutes)	34.86	48.25	42.62	54.01	-2.978**
Life satisfaction	2.93	0.53	3.38	0.49	-18.604***
Self-esteem	2.66	0.53	3.11	0.43	-20.422***

* : p<.05, ** : p<.01, *** : p<.001

[Table 6] Logistic model of retirement preparation for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Factors	Variables	B	S.E.	Wals	Exp(B)	95% CI		
Predisposing factors	Gender(Male:1, Female:0)	-0.156	0.151	1.061	0.856	0.636	1.151	
	Age	-0.014	0.010	1.854	0.987	0.967	1.006	
	Education	Ineducation	-1.312	0.336	15.214***	0.269	0.139	0.521
		Elementary school	-0.875	0.224	15.252***	0.417	0.269	0.647
		Middle school	-0.685	0.215	10.197**	0.504	0.331	0.767
		High school	-0.614	0.180	11.662***	0.541	0.380	0.770
	Marriage	College and Over						
		Single	-0.812	0.274	8.752**	0.444	0.259	0.760
		Married or Cohabit	-0.102	0.180	0.323	0.903	0.635	1.284
	Religion(Yes:1, No:0)	Separation or Divorce or Bereavement						
		0.222	0.124	3.193	1.248	0.979	1.591	
Enabling factors	Disability types	physical disability	-0.135	0.270	0.248	0.874	0.515	1.485
		Sensory of ability	-0.063	0.288	0.048	0.939	0.534	1.649
		Mental disorder	-0.012	0.436	0.001	0.988	0.420	2.323
	Chronic disease(Yes:1, No:0)	Internal impairment						
			0.072	0.134	0.290	1.075	0.826	1.399
	Disability rating(1~6)	-0.084	0.045	3.498	0.919	0.841	1.004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0.051	0.086	0.351	0.950	0.803	1.125	
	Employment(Yes:1, No:0)	0.903	0.179	25.545***	2.467	1.738	3.501	
	Receiving of basic living assurance benefits (Yes:1, No:0)	-1.316	0.267	24.297***	0.268	0.159	0.452	
	Self-homeowner(Yes:1, No:0)	0.503	0.136	13.764***	1.653	1.268	2.157	
log(total income+1)	0.135	0.032	17.408***	1.145	1.074	1.220		
Need factors	Current health	-0.084	0.120	0.487	0.920	0.727	1.164	
	Average exercise time per day (minutes)	0.002	0.001	3.411	1.002	1.000	1.004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0.771	0.111	48.117***	2.161	1.738	2.687	
	Life satisfaction	0.486	0.166	8.595**	1.626	1.175	2.251	
	Self-esteem	0.433	0.159	7.460**	1.542	1.130	2.105	
	Constant	-4.922	0.861	32.700***	0.007			

* : p<.05, ** : p<.01, ***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60세 이후의 노후준비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 연구이었기에 60세 이하의 연령만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17.5%로 이는 중고령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7]인 74.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0.6%[17], 12.5%[14]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 따라 연령범주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장애인의 노후준비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겠다. 삶에서 다양하게 맞이하는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22], 충분히 노후를 준

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3%로 2009년 장애인고용패널의 29.9%[17]보다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라고 불리우는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남들처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준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보니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Andersen의 행동모형에 따라 요인별로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인요인에서 남자, 고학력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노후준비가 높았는데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14,17]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와도 일치하였다. 두 번째로 가능성요인에서는 만성질환이 없음, 경증장애등급, 타인의 도움정도가 낮음, 취업자, 비수급자,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노후준비가 높았다. 기존연구[14,17]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노후준비를 함에 있어 이런 가능성의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

해 노후준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와 만성질환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14]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높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가능성을 키워 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욕구요인으로는 건강상태가 좋음,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노후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연구와 일치하였다[14].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양호할 경우 경제적인 노후준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한 연구[7]결과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조기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다고 한 결과와도 일치한다[6].

노후를 준비하는 집단의 경우 평균연령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았는데, 이는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7,17]들과 일치한다. 또한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이 우선시 거론되고 있어[6]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에서 신체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및 욕구요인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17]와 일부 요인은 일치하였지만 불일치하는 부분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 결혼, 취업여부, 수급가구 여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에 대해서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소유, 만성질환유무, 도움필요 정도가 기존 연구[17]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들이 그 외의 장애인들에 비해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장애인의 취업여부는 미취업 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며, 총 소득이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존 연구[17,11,23]에서 일관성 있게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의지 고취, 개별화된 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시스템,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및 제도 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 본다. 이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장애인의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욕구요인 중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 단계 증가할수록 노후준비정도가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3]에 따르면 학력이 낮음, 중증 장애등급, 정신장애인, 미취업자의 경우에 낮은 경제적 수준 상태인 빈곤으로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중졸이하, 중증 장애등급, 미취업의 비율이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 스스로 부여하는 부분으로 객관적인 지위와는 다르지만 위의 객관적인 상황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이들이 인식하는 상대적 빈곤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안정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욕구요인 중 일상생활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은 1점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정도가 1.6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대변할 수 있는데, 노후준비정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입증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24].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25]를 통해 더 이상 단편적이거나 긴급적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함으로써 그들의 노후준비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74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3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6]인 3.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장애인이 직무만족[26]이나 장애 수용[27]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다. 더욱 현실적이 아닌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담긴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개인과 환경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향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은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의 경제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모색, 소득증대의 기회제공 및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초기에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후준비를 해 나가도록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장애인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편견의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교육 등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노후대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노령기가 길어지면서 노후준비가 경제적인 노후준비와 함께 건강 및 심리적 노후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1] Y. J. Lee, H. R. Shin, M. A. Lee, "Influence of self-perceived health on life satisfaction of retire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4(3), pp. 35-59, 2013.
- [2] J. E. Seok, "The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9(1), pp. 163-191, 2009.
- [3] M. S. Ko, I. K. Seo, "Influences of the elderly's health status upon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7(1), pp. 1-14, 2011.
- [4] Y. S. Yoo, "Factors affecting the baby boom generation's preparation of old a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pp. 738-747,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738>
- [5] C. Y. Cho, M. Y. Song, K. S. Lee,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3, pp. 135-156, 2009.
- [6] S. Y. Lee,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elderly who are residing in the city are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8(1), pp. 205-224, 2009.
- [7] C. J. Park,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3), pp. 275-297, 2008.
- [8] S.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old age preparation of Korean adult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47, pp. 72-80, 2009.
- [9] K. H. Chung, Y. H. Oh, J. E. Seok, S. R. Doh, C. W. Kim, Y. K. Lee, H. K. Kim, "National survey results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 [10] S. H. Kim, S. H. Lee, S. H. Noh, I. G. Chung, "A study on link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 system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 [11] H. J. Park, D. Y. Lee, S. W. Lee, "A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needs and attitudes amo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3(2), pp. 101-127, 2003.
- [12] G. E. Kim, J. L. Lee, "The influence of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 mediating effect of role performan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9, 257-280, 2013.
- [13] L. M., Verbrugge, L. S. Yang,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53-267, 2002.
DOI: <http://dx.doi.org/10.1177/104420730201200405>
- [14] H. J. Choi, "Factors affecting on preparation of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the disabled: Perspective of life course," *3rd Conference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Panel*, pp. 639-660, November, 2011.
- [15] M. Y. Song, "Factors influencing on retirement preparation of disabled elderly," *4th Conference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Panel*, pp. 65-82, November, 2012.
- [16] C. Y. Park, "A study on influence of the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wom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 of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factor,"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4), pp. 53-77, 2013.
- [17] J. A. Cho, "A study on determinants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of old age," *Fall Conference scheduled of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and DB Conference of Financial welfare*, pp. 255-275, December, 2013.
- [18] A. S. Lim, *Self-esteem of the Blind Person*, p. 1-224, Korea Blind Union, 1999.
- [19] B. S. Koh, "The determinants of retirement acceptan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8, pp. 3-18, 2013.

- [20] S. W. Jeong, "The prospective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on self-esteem of persons with acceptance with hearing impairments," *Disability & Employment*, 24(1), pp. 167-197, 2014.
- [21] R. M. Andersen, "National health surveys and the behavioral model for health services use," *Medical Care*, 46(7), pp. 647-653, 2008.
DOI: <http://dx.doi.org/10.1097/MLR.0b013e31817a835d>
- [22] C. Y. Cho, M. Y. Song, G. S. Lee,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middle gener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3, pp. 135-156, 2009.
- [23] J. G. Park, J. J. Jong, "Changes in household income and poverty status lover analysis", The third panel, Proceedings of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pp. 3-22, 2011.
- [24] J. G. Park,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theoretical model and ita empirical test,"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8.
- [25] J. S. Kim, S. Y. Le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deaf pepole: The perspective of economic assistance and needs-based assistanc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2, pp. 25-46, 2013.
- [26] H. S. Park, H. T. Yang,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wage workers on job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2, pp. 67-84, 2013.
- [27] S. W. Jeong, "The prospective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on self-esteem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Disability & Employment*, 24(1), 167-197.

이 윤 주(Youn-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의료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과 조교수로 재직중

<관심분야>

정신질환간호, 지역사회정신보건

김 진 미(Jin-Mi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인하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통계학석사)
- 2006년 3월 ~ 현재 :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수료)

<관심분야>

응용통계, 경제·사회정책